

러 질겁게 하는 것이 남편의 감수하는 혜에 만분지일이라도 감응이 되리라 하여  
과약지못할 아참날빛에 뜻에 맞춘 이슬과 갖흔 성명을 너몸의 의무로 알고 성각  
흠이 스스로 마음을 가다듬어 심란흔심수를 억지로 남에게 보이지안이하고 남  
편의 질거위하는바를 좃츠 한가지로 질거위하니 일로인하여 데반근심을 이질  
날이 만이있더라 사랑으로하여살며 사랑으로인연하여 위로를엇는 너의몸은  
명일을과약하기 어려운 분뻐과 갖흔 사랑일지라도 아조는 남편의 진심으로 스  
랑하는이정에 서드러가던뜻이 다시 뛰어나는 모양이라

그러나 너의 슈티흔몸이라 성리상감응(生理上感應)으로 또한 신경과민(神  
經過敏)이 되여 지닐일과 오느일에 더하여 여러가지로 생각이만이있다 본리  
그 남편의 성질을 아는지라 장차나을 지식의 신상은 엇지되며 너몸의 장리는 엇  
지되고 전일의 너머물이 남편에게만 알뿐안이라 세상에 전과되면 그일은 장  
차 엇지하리오 지금은 정혈관의 부인이라 하여 사름마다 앙시하나 전일너학성  
으로 잇슬씨에 정부를엇어 그혈속까지 밝은후에 다시 너치임을받고 심지어  
나은 지식까지 살히하려하였스니 뜻기만하여도 모골이송연흔 약흔계집으로  
남의 정하고 결벽흔집안에 드러와서 드러운악명을 시스게흔몸이라 가량이몸  
은더럽다하여 리흔을홀지라도 임의 실어노은루명은 다시 씻지못하리니 집안  
의명예를 극히중하게아시는 남편이 그덕은오작히 락담실망하시려함이 너몸

루 우 쌍

의 리흔되는것보다 이몸을밋고밋으시든 남편의일이 더욱슬프도다 이성각져  
성각에 밤이깊도록 잠을 이루지못하고 장리를멀니 생각함이 흐르는것은 다만  
눈물이라

만일이번에도 출산후에 전일과 갖치 실진병이발하면 엇지하며 그병이발하면  
이몸은 그날로 맞치는날이라 하는 생각으로 또한가지근심이 더흔다 이와갓  
흔근심으로 야심으로륙 지친몸이 간신히 잠을일우면 흥흔몽스뿐이라 전일에  
부친이 죽었다고 말습하시든 심여세되어 보이는 옥동갖흔아달이 부모를원망하  
는드시 참문까지와서 모조서로 상봉하여 씨여안고 통곡할씨 난디업는 약흔  
사름이 드러와서 그아히를 빼아서물니치고 오날부터라도 다시나와 한가지로  
빅년을 히로하저하며 만일불청하면 니가 정육조에게 너의 전후스실을 모다교  
하겠노라 할지음에 삼씩쳐다르니 남가일몽이오 전신에는 땀이흘너 옷을쳐서  
엇는디 이것은 다행이몽스어니와 만일실상으로 일언일이잇스면 엇지하리오  
하는 생각에 더욱몸소리가 셋천다 이럼으로 겉저의얼골은 조연슈척하며 티  
중인고로 몸이조연 곤뢰하여 그러흔인가하고 조곰도 다른의심은 두지안이하  
며 도로혀 정다운언사로 위로하며 질겁게하여 출뿐이러라

루 우 쌍

데이십오회

일々は 정육조가 너다에 드러와 경저를향하여 학리저리론(學理的理論)으로부

중아희에게 티흔일을 설명한다

『넷째 성현의 말씀에하기를 슈티흔부인은 티교(胎敎)라 하는 것을 중히 녀여서  
목불시사색(目不視邪色)하며 이불청음성(耳不聽淫聲)이라 하였스니 너싱각  
에도 대단이 당연흔리치라하오 모친의 마음이 그부중에 있는 아희에게 미치  
는 영향이 과연 다대할것은 성리상으로 보던지 무얼로 보던지 확실흔일이오  
또는 의학가의 말을 듯드리도 모친의 혈액(血液)과 티아(胎兒)의 혈액은 다  
만열분막(膜)이 한아히 겨우얕는고로 항상서로 한가지로 영향을 받는다하  
며 그모친되논이의 혈액이 변화하면 그리아도 한가지로 좃츠 변한다하니 이  
런사득으로 그부모에게로부터 유전(遺傳)이 된다하는것도 필경야에는 혈액  
의관계로하야 그러흔것인일이 분명하니 그티교라하는것이 엇지안이 필요  
하겠소 그리고 부중에 있는 아히는 뇌수(腦髓)가 아주 견고치못흔연고로 극  
히 영민히서 조곰아흔일에도 다대할감동을 받는사득에 그아희가 나중에  
장성하면 그것이 한특성을 짓는것이라하니 아희를교육하는디는 티중에 있  
슬씨에 그모친의티교가 데일이라하오 니가 서척으로 상고하여보는것을 말  
하게되면 나오는아희가 제집아하면 그몸의 위로절반은 부친의 영향을받고  
그부친을 담은것이오 아리로절반은 모친을 담는다하며 만일그아희가 사  
나희일것갓흐면 위로절반은 그모친을 담고 아리로절반은 그부친을 담는다

『그런고로 가만이 경험을하여보면 지혜있는 사나희어버이의 딸은 그부  
친의지혜를담고 어진부인이 나흔아달은 또흔반다시 그모친의 어진성질을  
담는법인고로 예전부터 오늘날까지 현인군자의 모친은 티기다 어진부인네  
들이나 그것만보아도 알것이안이오』

『그런고로 이번엔아희가 만일 사나희일것갓흐면 필경부인의 아름다운  
성품을 받아가지고 나올터이니 이번아히는 부인의성품을 빗쳐주는 거울  
이라고도 할슈잇소 그러히서 나는더구나 질겨하는것이니 이제는 아모도룩  
부인몸을 조심하여 티중에 있는아희가 조처못흔영향을 안이받도록 티교를  
잘하여 주시기를바라오』

티교(胎敎)에티하여 남편의순々が 설명하는말을 듣고 경조는 지금에 서로히  
마음의고통을 의의지못한다 조기도 어머니되는 사람의마음이 어린아희에게  
영향이미는줄을 모로는것은 안이로디 그것치기히는 뜻하지안이하얏더니 만  
일이러듯 모친의마음이 티아에게미치는감동이 심할것이면 요스이이몸은 항  
상두려운마음과 근심에싸이여 지니는몸인티 얼마나 이 부중아희에게 히를미  
치리오 더욱이사나희는 그모친의성품을 담는다하니 요스이 나의심스와갓치  
마음과괴운이 약하게티이지 안이할지도 모로겟스며 만일그러하면 그아희의  
장리는 엇지되며 가량이 몸의순간죄가 루설하지 안이한다하여도 그것이한낫

조마경(照魔鏡)이 되여 이아히의성품에 빛초여 나온다하니 그성각은 삶에도 못하엿던터이여늘 무슴연고로 이몸의죄는 이와갓치 길게빌미를 밧는고하며 다만 탄식할뿐이라 그러나 지금비록 탄식할들 다시 전일몸으로 도라갈리업스며 한갓탄식하고 슬퍼하면 점々티아(胎兒)에게티하야 악감화(惡感化)만 줄뿐이니 찰아리 북중아히를 위하여 스스로 지금씩지 지은죄를닛고 결벽할 마음으로잇서々 이출성하는 아히로하야곰 착훈아히를 만다는것이 어린아히의 몸과 이몸에다 한가지로 유익이잇스리라하여 비로소 마음을 돌니엿더라 생각지안이하즈 결심하나 다시성각이 일어나는것은 사름마다 그러할일이라 경조도 어린아히를 위하노마음으로 허산하기까지는 만스를 다이져바리려하여 그호함이업는것도 안이로티 점々들이쳐서가미 처음갓치 만면의슈심은져 이살아지고 전일잇던두등과 신괴불평하던것도 점々회복되여 잠잔보미 근심잇는사름으로는 보이지안이하나 다만 양미간에 잠겨잇는빛은 도저히 업서지려하지안이러라

데이심륙회

물네박휘갓치 도라가는세월이 산과들에 아지랑이씨고 한가하던춘가에 금슈갓흔봄빛도 어나듯 호정의꿈이되고 청산록음스이로 울고지니여가는 두견의소리 처량할씩가 되엿더라 리경조는 밧서산삭이 급박하얏는고로 그쌀을스



랑하노마음에 날로이르러 동정을보는 리과장은 이날도이르러

『이이 오날은 괴운이 엿더하냐 아주 불일간으로 순산할괴망이 업느냐』

『네어제도 그할법이 와서보더니 아주급하지안이하다고 말히요』

『그러나저러나 나올터이면 어셔나야지 도모지궁금히 못견디겟구나 그런디 요식은 아히가 비스속에서 더썩노니』

『엇더하셔는 비스속이썩쳐서 잠잘슈업는씩가잇셔요』

『응 그러하겟지 그것게몹시 아히가노라야지 사나희지 그것치안이하면 제집아히라더라 너가어제도 뒷줄에올나가서 괴도하고 또오다가 점장이에게점치지쳐서보앗드니 사나희라는 점괘더라 그리닛가 아달이나올것은 분명하고 내가 또지성으로 축원을하얏스닛가 부처님씩셔라도 설마 귀남즈를점지하여 주시겟지』

『처음부터 풀이업시안졌던 경조는 무슴념려가잇는지 이윽이 생각하다가』

『나는 허산할씩에 큰걱정하나이 잇셔요』

『걱정이라니 걱정은 무슴걱정이란말이나...』

『허산이 중할가하여 녀려가된다 하는말이나 그것은 겁히념려할것도 업다니』

하며 스면을휘휘도라보더니

『요전에 허산할썬도 대단순할앗스닛가 이번에는 더구나 순할터이지』

경조는 얼골이 푸르러지며 목소리를 나죽이호여  
『네가 걱정이라호는것은 그 걱정이안이라 만일요전모양으로 허산후에 그런  
병이 다시싱기면 엇지호나 호는싱각에……』

리괴장은 잠작놀니이며

『그리셔야 되겟니』

『그러나 그럴리는 만무호지 전과이번과는 좀 다르지안이호냐 전에근심만  
호다가 심지어 물에 빠져죽으려서지 마음을먹엇섯스닛가 글로히쳐 나중에  
는 그런병이 다시싱기엿지 이번에야 근심이야 무엇이잇니 그런병이 다시나  
서야 쓸슈가잇니』

『글세 그러할가요 네 아버지……』

『네는 왜또 무슨근심을호느냐 병이라호는것은 제마음으로 가는것이니 마음  
을첫지로편안히호고 잇스면 병도안이나느니라』

『네……』

리괴장은 경조의근심을 위로호노라고 그리말은호엿스나 경조의 풀괴업는디  
답에 또흔념려가 업다일지못할지라 눈을감고 이윽히싱각호다가

『그러나 이이경조야 그럴리는 만무호지만은 세상일을 엇지알슈잇니 한번저

니여본 경험에 잇스닛가 네가 녀려호기도 쉬운노릇이다 그러나 니가 지금  
얼는싱각나는일이잇는디 다른게안이라 니가 너의령감씩말호고 너를오날부터  
러라도 다려다두고 허산서지식여 보니게호엿스면 너도녀려업고 병날리치  
도업다 그리지안이호여도 요전부터 너의령감씩서 나다려말호기를 허산은  
천정에다려다 호는것이 좃겟노라 말호기에 나는디답이 천정이라고안쥬장  
이업고 사나희뿐이니 만일허산구원을 잘못호엿다가 그일을 엇지호겟나 말  
은호엿지만은 그것은 지금이라도 못너를다려다가 허산식여 보니겟다호면  
너의령감은 못허락할터이나 그것게호면 엇더호냐 응경조야』

경조는 한참싱각호더니  
『그렇게히주시면 나도 몸이얼마큼 편할는지 몰나요 그리고 요전에 령감씩  
서 그것게말씀호시고 김승지덕아쥬머니도 그것게호는것이 대단이좃겟다고  
말씀은호셴셔도 마음에안만히도 저호고십흔디로 호려는것갓히셔 안되엿서  
요』

『천만에말이다 천정에가서 허산호는것은 이제상사름들이 모다호는법인디  
너만 그러호줄아느냐 그것은조곰치도 걱정이마라 니가그러면 너의령감다려  
말호마』

『네 그럼아버지씩서 잘말씀호여쥬셔요』

그이흔날 경주는 그 남편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친가로도라왔다 비록 한동리  
라 할지라도 잠시 간서로 작별을 고함이 부부간 섭섭한 정리는 일을 것엄스며 쓰  
는 출산 후에 만일 전과 같은 병이 발하여 부모와 남편에게 근심을 끼치지나 안이  
할는지 녀려가 노이지안이 혼다

데이십철회

경주는 친가로도라온지 십여일 후에 이르러 옥등가흔남자를 나앗더라 리괴장  
은 경주로하여금 순산성남하기를 날로 축원하더니 이날에 이르러 히산하기를  
지촉하다가 홀연 어린아히목소리가 방안으로 좃츠남의 앓짜늘녀여 산모의 방  
안으로 드러가서 고기를 길게느리고 엉거쭈춤하며 아히를 나려다보는데 그마  
음은 외손자의 얼굴을 보기바람이오 들지는 만일 제집아히를 나앗스면 엇지할  
고 녀려되여 엇지할줄모로다가 히산구원하는 노파가 삼을갈고 정히써서  
포덕기에누이며

『슈산도 흥엿슬뿐안이라 옥가흔도령님을 나으셨습니다』

리괴장은 그제야 마음을 진정하고 드러다보더니

『오! 정말산의놈인가 엇의보지 그놈잘도싱겨지 잔난놈의목소리가 엇지하  
면 저리영악한가 아! 참 고마은일이다』

흥며 정신업시 어린아히만 드러다보더니 다시삼작 생각하는듯이

『어! 참 이젓군 령감씩 괴별히야지 이괴별을드르면 오작조와할나구 누구갈  
사름업나 그럼니……너……너가 얼는단겨오마』

흥며 일어섯다가 다시경주의 누은업해가서

『이이경주야 네가아달을 나아쭈기로히서 녀마음이 엇더케 조흔지모로겐다  
신기는엇더하냐 아모도록 마음을진정하여서 괴운이 써오르지 안이하도록  
히라』

경주는 자리우에 모으로누어 그부친의 눈물먹음은 얼굴을 치어다보는데 치  
어다보는눈에도 눈물이 갖등흥며

『네 몸은그닥지 괴로운줄 모로겐서요 어서 저의령감한테 괴별이나하여쭈  
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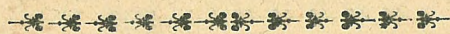
『응글제 지금니가 괴별하러 가는길일다』

『아이고 아버지씩셔 안이가시드리도 아모나 누구하나 보너지시오』

『안! 이녀가 갖다와야지 할거름에 단여을거슬』

리괴장은 깃거은마음에 정신업시 할거름에 정협관의집에 이르러 문을열고  
황황히 드러온다

정옥주는 처상우에 책을펼쳐쳐코 눈은 책을향앗스나 마음은 안히신상을  
념려하여 아모도록 순산성남하기를 바라더니 홀연 리괴장의 드러움을 반분은



경주는 자리우에 모으로누어 그부친의 눈물먹음은 얼굴을 치어다보는데 치  
어다보는눈에도 눈물이 갖등흥며

『네 몸은그닥지 괴로운줄 모로겐서요 어서 저의령감한테 괴별이나하여쭈  
세요』

『응글제 지금니가 괴별하러 가는길일다』

『아이고 아버지씩셔 안이가시드리도 아모나 누구하나 보너지시오』

『안! 이녀가 갖다와야지 할거름에 단여을거슬』

리괴장은 깃거은마음에 정신업시 할거름에 정협관의집에 이르러 문을열고  
황황히 드러온다

정옥주는 처상우에 책을펼쳐쳐코 눈은 책을향앗스나 마음은 안히신상을  
념려하여 아모도록 순산성남하기를 바라더니 홀연 리괴장의 드러움을 반분은

경조가 순산호회보를 전하러 흥인가 짐작하고 마친후 리과장은 숨츠목소리로  
『아! 령감 회소식을 전하러 너가왔네 지금살이 득남을 흥였네 그러 이런경사  
가 어디잇나』

이소식을듯더니 정옥조는 눈에깃거운빛이 낮하나며

『아! 아달을 낳서요 참 저는 소원성취를 흥였습시다 그러디 산모는 별로후  
탈은 업습닛가』

『순산이라니 그런순산이 어디잇겟나 언제히산히든가 심히 산모산아가 모다  
탈이업고 어린놈은 싱긋기나 좀잘싱겟나 관옥갓흔얼골이오 두목지풍치데  
그러어서좀가셔보게』

『네! 그럼지금갓치되시고 가겟습니다 장인씨서 이렛케오셔々 너모황송하  
오이다』

『천만에 이런희보를 너가와서 전하러안이하고 누가하겟는가』  
흥며 리과장은 희식이만연하며 정옥조와 한가지로 집에도라오니라

정옥조가 이르미 이씨어린아히는 모친의 품에안기여 이 세상살이를 처음으로 고  
요히쉬는터이라 경조는 남편의드러오는 모양을보더니 반가온나으로 몸을반  
쯤이러 마즈려하는것을 정옥조는억제하며

『안이 이러나지마시오 그티로누어계시오』

흥며 경조버키머리에 좌정하더니

『아! 그리사니놈이드라지』

흥며 잠든어린아히를 물그림이 드러다본다 경조는 아히를 아리목으로 밀쳐  
누이며

『네 지금막 잠이드러셔요』

정옥조는 어엿분어린아히의 자는얼골을 한참보더니 다시얼골에 미소를씨우  
는지라 경조는 그모양을보미 과연이것은 진실한고육지정으로 순전한사랑이  
진정으로 나음을보고 지기도스스로 일총더깃거움을 의의지못한다

『아그놈이 그만잠이 써여셔 눈뜬것을 보앗스면 더어엿부겟구면』  
흥는 남편의말에

『아모도륙 이저석을 사랑히길너주소요……』

흥며 경조는 눈물을씨러들인다 정옥조는 허々우스며

『그것 무슨소리오 저식사랑안이하는사람이 어디잇단말이오』  
리과장은 그엿헤안져서 조흔마음을 견디지못하다가

『그렇치 누가너저식 사랑안이하는사람이 잇슬가 나도이런경사는 락디이후  
에 처음갓흐니 쓸하나를 시집보너였다가 남편이 합당하게알고 첫아달을나  
아서 종스를잇게하니 이런만행이 어디잇스며 이런복이 어디잇겟나 나는인



정옥조는 어엿분어린아히의 자는얼골을 한참보더니 다시얼골에 미소를씨우  
는지라 경조는 그모양을보미 과연이것은 진실한고육지정으로 순전한사랑이  
진정으로 나음을보고 지기도스스로 일총더깃거움을 의의지못한다

『아그놈이 그만잠이 써여셔 눈뜬것을 보앗스면 더어엿부겟구면』  
흥는 남편의말에

『아모도륙 이저석을 사랑히길너주소요……』

흥며 경조는 눈물을씨러들인다 정옥조는 허々우스며

『그것 무슨소리오 저식사랑안이하는사람이 어디잇단말이오』  
리과장은 그엿헤안져서 조흔마음을 견디지못하다가

『그렇치 누가너저식 사랑안이하는사람이 잇슬가 나도이런경사는 락디이후  
에 처음갓흐니 쓸하나를 시집보너였다가 남편이 합당하게알고 첫아달을나  
아서 종스를잇게하니 이런만행이 어디잇스며 이런복이 어디잇겟나 나는인

제논 스 무여한일제

데이십팔회

루 옥 쌍

리경조의 허산은 극히 경한 앓스나 산후여증이 꽤히 소복지 못하여 신경쇠약(神經衰弱)으로 약간의(히스테리)라 하는 병증이 되엿더라 리과장은 자기여석의 득남한것을 기거위하나 경조의 산후여증이 꽤복지 못함을 근심하며 더욱이 티 중으로잇슬썩에 상심한일이 만흔고로 인하여 산후에 중치는안이하나 다시 전 일에 알른병이 발하였스되 다행이 니집에와서 회복하였는고로 적이안심되여 주야로 경조의 병이 꽤복되기를 축원한다 경조는 다만어린아희의 무병장성하기를 날로바라며 또는 질거위하여 자기의젼으로 길느려하였스나 불행이 유도가 부족하여 녀々히 양육할슈업스며 또는 의원의말이 산후의산모는 지금 원리가 탈진하여 병이 발하였스니 산모로하여곰 젼을먹이는것이 불가타함으로 부득이하여 유모한사람을 엿어두엇더라

경조는 처음에 스스로 녀려하든바와갓치 병세가 중치는가지 안이하나 거의모은정신이 시々로 왕리하는디서지는 이르러 바름에불나는 나 무입파리 한조각이라도 능히경조의 지금병중약함을 좌우(左右) 할너라

그럼으로 스 소한일에라도 잠잠기거위하다가 문득다시 슬허하며 썩々로 공연한일에 놀니이며 엿더한썩는 열해사람이잇스면 귀치안타하여 물니치고 후시

루 옥 쌍

에는 사람이업다하여 심란하다 탄식하는썩도있다

그러나 다만어린아희의 열골불제마다 위로함을엿어 경조는마음을 진정케할썩가 극히만어나 썩々로 어린아희우는소리에 홀연히 무서운소리나 들은듯이 삼썩놀니여 누엇든몸을 반쯤일어 스방을돌나볼썩에 그열골은 청식이돌며안광은 휘황하여 전혀 정신을일은사람갓다가 다시 나의정신이도라오면 저리우에 넘어져서 이불도 열플서지 덮는일도잇더라

정육조가 그아달의일흔을 정남(正男)이라 지엇스니 이는본리 정육조의원하든바 남아를엇으며 저의목적하든바를 정사조를붓침이오 그아희를스랑함은 일오말하지안어도 알지라 그러나 다만 그안희경조의병상이 꽤복지 못함을 녀려하여 날로경조의 누어잇는비키압해일으려 고적한병인의몸을 위로도하고 하로밤비 경조의몸이 전일과갓치 건강한사람이되기를 원하더라 이달로 정육조가 리과장의집에일으려 경조잇는방으로 드러와보니 이썩경조는 바야흐로 잠이드러는지라 정육조는 경조의잠이 썩일가 녀려하여 고요히 그침변(枕邊)에 안져 엽해호터잇는 미션을잡어 부치질을한다 썩는정히 철월초순이라 아참붓터 바람도업고 썩는듯흔 더위는 숨복고열(三伏苦熱)에 나리지안이한다 담뱃게서서잇는 괴화나무는 히를가리워 마당에 그늘을지엇스니 청량한괴운이 썩々로일어나 그나무에안져잇는 미암이의 우는소리난 도로혀 사름으로하여

루 우 쌍



곰 더위를 감동케 한다

정옥주는 서서히 부처를 움작이며 안희의 얼굴을 드러다보니 지니인 이쥬잔등 안애 몸의 슈척함이 현저하얏스니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씹는지 고민(苦悶)하는 빛이 미간에 가득하얏고 이마우에는 구실같은 숨이 흐르는 고투 사랑하는 안희의 일이라 슈건을 너이며 그 숨을 곱게 씻기고 부처로 다시 그 주는 얼굴을 부쳐주며 안젓슬씨에 리과장은 사랑으로 좃츠 부처를 한 손에 쥐이고 드러오다 가 이모양을 보고 깃거온 마음, 눈에 눈발서 눈물을 먹음고

『어이 이인 이더위에 낮잠을 너무즈는고 저의령감 온졸도모로고 어이 그 만이 르케야 하겟네』 정옥주는 급히 손질하여 말니며

『아슴시오 졸날씨는 잘즈는 것이 몸에 대단 좋습니다』

『그럼 감안이니 버려듯가 어린놈은 지금유모하고 저이 건넌방에서 즈는디』

『네 그러나 요스 이더위는 너무대단하오이다 그러』

『글세 이런더위는 도모지 처음갓흐니 요식으로 서울서는 못된병이 만이 단가 다는걸』

할며 서로이 약이 할지음에 건넌방으로 좃츠 어린아히 우는 소리가 나더니 점々 우는 소리가 높하진지라 이씨 경주는 어린아히 우는 소리에 삼쌍 놀녀 몸을

반쯤일더니

『아이고 아가야 너가 너를미워셔 죽이려하는 것이 안이니 나를원망하지 마라』

이와갓치 부루지진후에 경주의 눈에는 피눈물이 창일하며 얼굴은 독마가들던 사름갓치 괴로운 빛치 낮하난다

데이섭구회

리과장은 경주의 잠썸디 갓치하는 말애 혼비백산하여 안식은 흙빛과 갓하야 지며

『이이경경 경주야 그게 무슨 소리냐 응이이 가위가 눌렸느냐』

경주는 다시본정신이 조곰도라왔는지 과랏케 질녀어있는 부친의 얼굴과 묵々 히안져잇는 남편의 얼굴을 좌우로 바라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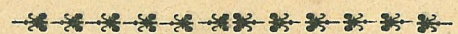
『아이고 너가지금 숨을쉬었스나』

리과장은 적이안심은하엿스나 다시정옥주의 안식을 바라보며

『숨! 숨이나 그숨이 무슨 숨이란말이야 가위를 눌렸셔도 그것케 몹시 눌렸느냐 여보게령감 몹시는 가위도 눌렸나보이그려』

정옥주는 처음에 경주가 지각을일코 불으지 않는 소리와 놀나온 말소리에 잠 시간가슴의 요동을 진정치 못하엿스나 이도또한 병으로인연한 일이라하야 그다

루 우 쌍





지의심은 두지안이하고 고요히 안희의동정을 살피고있는데 이씨에 리괴장은  
『여보게령감 아마 열기가 심히셔 못된몽사를 보았나 보이』  
맛가부터 울고잇는 어린아히는 우름을긋치고 슈음스이로부터 미암이소리만  
들니더라

경조는 오히려 스면을휘々들니보며 무슴소리를 드르려하는것갓치 귀를기우  
리며

『아이고여보시오 이씨지울고잇구려 멀너々々셔 울고잇스니 필경나를 원망  
하고우는것인가보오 저것좀드러보시오 멀니셔 우는소리가 들니는구려

리괴장은 손으로경조의 흥는말을 억제하며  
『이이 무엇이 울고잇단말이야 미암이뵈게 우는것은 업는디』

정옥쥬도 입을여러  
『여보부인 병으로히셔 그런소리가 들니나보오 마음을 공동히말고 진정을  
하오』

경조는 힘업는말로  
『아아 그렛습닛가 아버지씨셔도 들니지안이함심닛가』  
『들니기는 무엇이 들닌단말이야 공연히 그런헛소리 하지마라』  
『그런디 어린놈은 지금어디갓세오』

『응 지금유모에게안겨셔 젖먹나보다 다려다좀 보라느냐 이의々々 유모거  
괴잇나』  
『응 유모를 부르니 유모는 빙글々々웃고잇는 어린아희를 안고건너오는지라  
리괴장은 고기를기우려 들여다보며

『오 눈을커다케뜨고잇구나 별셔사름을 다알아보는것갓고나 어디어머니에  
게 좀안겨보아라』

경조는 어린아희를 뵈아안고 그얼굴을 내려다보니 정옥쥬와 리괴장의 눈도  
모다 어린아희게로 향하였더라 유모는 엽혀섯다가

『정말아가기 어엽부기도하저오 눈하고코는 어머니마님을 췌셔왔저오 그리  
고 입건체는 띤연령감마님이시저오 네이 성원님』

『그렇가 나는 령감마님을 만이달문줄 아는디』  
『그렛습저오 두분중으로 어디던지 다갓치 달무섯갓저오 호々』

이리할췌에 경조는 정신이 온전이도라와셔 익이々々 어린아희 정남(正男)의  
얼굴을 드러다보더니 홀연한방을 눈물을짓는다 무엇을싱각하며 무엇을슬퍼  
하는지 알슈업스나 정옥쥬는 드러다보며 친절이못는다

『여보 무엇이설어셔 그리하시오』  
『아아니오 설어셔 그리하는것이안이라 아기를드려다보닛가 어엽버셔 귀흔



『여보 무엇이설어셔 그리하시오』  
『아아니오 설어셔 그리하는것이안이라 아기를드려다보닛가 어엽버셔 귀흔

마음에 눈물이 남니다 그려

경조의 마음은 지금 다 섰히 전에 나는 어린 아히의 신상을 생각한다 지금이야  
히 정남이는 부모와 외조에게 귀염을 받고 질거운중에서 세월을 보이며 장성한  
건만은 그 아히가 지금껏 만일 스라잇슬지경이면 슬푸다 부모도 보지 못하며  
외조도 보지 못하고 어니곳에서 신산하고 자미업는 날을 보내고 잇스며 저의 아  
범을 오작이나 원망하며 잇슬이오 무한 슬픈마음이 가슴에 창일하여 언제던  
지 무죄한 어린 아히를 바림으로 하여 그 죄악의 갑품이 도라올날이 잇슴면 부모  
와 조식세사람이 한가지로 비참한 운명(運命)에 빠질지도 모를지라 그 생각  
을 하니 홀연 왕왕 눈물이 소미를 적신다 정욱조는 경조의 심중은 아지 못하고  
다만 모든일이 병으로 인연함인가 하여 도로혀 경조의 신상을 가련히 녀여 정다히  
『여보 우리네의가 이제야 처음으로 정남을 엿엇스니 귀히 길으기도 허려니와  
이 아히를 아모도록 잘양육합시다』  
『나 갓흔 무식한 계집이야 무엇을 하겠습니가 모다 령감피서 잘가라쳐 주셔  
야 하지오』

데슴심회

살갓치 닳는 세월이 한리셔왕(寒來暑往)을 몇번 거듭하였는지 정협과의 아달정  
남의 나히 임의철세에 이르렀더라 정협판의 부々は 장중보옥갓치 길으며 달은

사람이라도 정남의 어엿분얼골을 한번 보면 사랑슬어운마음이 스스로 일어나  
더라

정남은 그 모친의 아름다운얼골과 부친의 엄중흔티도를 겸하였는교로 한곳이  
라도 험절을 잡을곳이 업는 조흔 아히오 성질도 그 모친의 성질을 받았는지 온저  
항고요하여 일즉이 갓치 노는 아히들과 다도는일이 업스니 뉘안이 정남의 위인  
을 총찬하리오 그러나 다만 한결됨은 그 부친과 갓치 응디흔마음이 적고 겁하  
는일이 만으며 일에 임하여 용맹이 적은지라 그럼으로 정욱조는 심히 우려하는  
바이러라

정욱조는 처음부터 정으로 아히를 가라치느니보다 정리로 인도하여 어린 아히  
의 마음을 굳세게 하며 정당한 일에는 몸이 업서지드리도 마지안이 한다 하는 마  
음으로 힘을 쓰나 경조는 본리 마음이 약한 사람으로 남편의 주의(主義)를 표준  
하여 정남을 가라치고자하나 항상 경조는 겁히 아달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주의  
를 일을씩 만히 잇스며 글로 좃추 정욱조의 교육하는 방법이 도저히 효험이 낮  
하나기 어렵더라 경조가 만일 공명정대한 마음을 가지고 쓰노 조귀의 양심(良  
心)이 사람을 향하여 쓰릴것도 업스며 붓그려울것도 업고 그 몸도 한가지로 건전  
할것슬갓치 하면 그 건전한 몸과 건전한 마음으로 능히 완전한 감화를 어린 아히에  
게 줄것슬이로되 나의 마음에 여러가지 약점(弱點)을 가졌스며 그 몸의 건전치 못

함으로 인하여 어린아이를 제지(制裁)하는 힘이 열버갈뿐안이라 또는 외아달  
 의 귀한 마음에 항상 엄하게 꾸짖고 종아리쳐 가라침을 참아가지 못하며 부친에  
 게 꾸지람을 듣고 어린아이를 눈물 흘리고 있는 모양을 볼제마다 잔인하고 불상  
 한 마음에 가슴이 무여지듯 하여 남편이 그아달에게 엄하게 벌을 더할씩면 경  
 주는 중간에서 정남을 위하여 보호한다 그러나 경제도 교육업는녀자가 안  
 임으로 정남을 한가스랑하는디 침혹할뿐안이라 나의 악한 마음을 면려하여 아  
 달의 완전교육을 힘쓰고자하나 어린아이를 연약한 마음에 어룬이 꾸지람을 마  
 다 겁을 먹는것이 가장 잔인하여 버리지안이하며 꾸짖지도안이하고 아히로하  
 야곰 선량(善良)한 발육을 식히고자하는고로 자연정에 편벽됨이만아짐을 부  
 지불식지중에 정남의 성질을 허롭게하는줄을 서다지 못한다  
 정옥주는 경주의 이자하는정이 넘오심함을보고 때마다 마음으로 부족히성각  
 하나 안희의 성질로는 도저히아함을 강경한티도로 교육을하지못할줄 잠작함  
 이 안희의 부족한곳을 너가기우이라하여 지그는 더욱스스엄하게 가라치고자  
 결심하였는고로 아히가만일 악한일에 향하는일이 조금이라도보이면 조금도  
 용서치안이하고 벌을써우는티이라 부친되는사람은 불로써가라치고 모친되는  
 사람은 물로써가라치니 슈화는본티 반티되는물건이라 강유가서로 적당치못  
 하니 이와같은 교육방법으로 엇지완전한감화를 그아히에게 주리오 이럼으로

정남이가 점점자라미 그부친의 항상엄한벌을 무서워하고 그모친의 스랑하는  
 소리에 숨고저하는성질을 길넛는고로 무슴잘못한일이잇스면 힘써그일을 부  
 친에게 숨기고저한다 그러나 정남의 위인은 결코 편벽된성질을 가진아히가안  
 이라 그부친을 항상 두려워하나 한편으로는 그부친을 못쫓치니 부친이나를 스  
 랑하는줄을 어린마음이나 능히 짐작하는고로 부친을호발만치라도 원망하지안  
 이한다 정옥주는 평성에 식물(植物)을 조와하며 과실나모에는 한 벽이잇는고  
 로 후원넓은곳에 각종화회와 진귀한과목을심으고 그곳에 후원슈직이들두어  
 나무를비양케하며 곱하여 과실을슈직케 하였는디 그여러과목중에 극히귀중  
 히아는 서양스파나무 한기가잇는디 이나무는 전히에 서양으로부터 가져다가  
 심은것이라 이히에 비로소뜻이피고 열미다섯이 열었는지라 정옥주는심히귀  
 히역이여 슈직이를신축하여 특별잔슈케하고 일야로 후원에비회할제 그다섯  
 키스파가 미일커가며 빗히붉어지는것을 날로보고 깃거워하더라  
 일々は 경주가 화병에 쇠질뵈을 구하고자하여 정남을불너 후원슈직이에게가  
 서 조흔뜻으로 두서너가지 엇어오라하얏더니 정남이가 슈직이에게가는 길가  
 에서 부친이스랑하는 스파나무에 다섯키과실이 가지가 휘도록 아리로 처저잇  
 는디 정히 어린아히로하야곰 침을넘기게되엿는지라 정남은말서 눈이 이곳에  
 일으러는고로 잠잔욕심에 부친이 이지중지하는것을 이져바리고 스방으로도

예삼십일회

라보아 사람이 업슴으로 그중에 익고 큰 것으로 두기를 싸서 한기는 먹고 또 한기는 품에 감초고 슈직이 있는 처소로 향하야 가니라

정남이는 후원슈직이에게로부터 쫓가지를 엮어가지고 모친에게로왔다니 후원직이는 뒤쫓추 후원을 순행하다가 주인이 가장 사랑하느니 사과나무에 금년에 비로소 밋천열미 다섯기중에 두기가 보이지안이하느니라 후원직이는 이모양을 보고 한갓 놀닐뿐안이라 별안간에 열물이 파랗게 질리며 주인이 썩지람을 무엇이라 대답하리오 지금까지 달녀 잇는 과실이 삼시간에 엷서졌스니 필연연고 가잇슴이라 하고 나무아리를 즈세히 살펴보니 어린아희의 적은발자취가 두서너곳에 현저히 낮하났느니라 이곳에 다른곳아히는 드러오지안이하얏고 다만 앗가아가기 지금지녀갓쓸뿐이니 필연아가의 작란이 분명하니 차라리 스실티로 주인에게고함이 가하다하고 즉시 주인에게로향하야 그스실을고하니라 정협판은 지금쓸아리서 화초를손질하며 비회하다가 슈직이의 고하느말을 듣고 발연변식하며 로괴팅중하다 정욱조는 사과를 그와갓치 앗가워흙은안이라 사과도 앗갑다홀지나 그아달정남을 앗기느니비하면 텨양지관이니 정욱조는 그과실을앗기여 노흙이안이라 일즉이 아달에게 명하얏던부모의 경계를직히 지안이하고 이와갓흔 경솔한거동을 행하얏슴으로 노흙이라 이제 정남의행하

거조가 그부친정욱조로하야 품 치욕(耻辱)을 감동케하얏더라

그러나 사과를흙추후에 정남이가곳 죄를 뉘웃치고 그부친에게 사죄하얏스면 정욱조의 노괴가 아참날에 눈슬듯하고 도로혀 내아달의 머리를 어로만지며 뒤의일을 경계할뿐이갓거늘 정남은 도로혀지은죄를 감초고즈하얏더라

정욱조는 정남의지은 바르지못한행위를 그안히경조에게 말하고즈하야 안으로드러오니 이적에 경조는 화병에삿을삿고잇스며 그엷히는 정남이가 안져잇는지라 정욱조는정남이가 맛참잇슴을 도히녀이여 정남을향하야 눈을부릅뜨며 『이이정남아 너는앗가 동산에가서 사과두기를 싸와지』

이말을듯더니 경조는 앗씩놀녀어 손에들엇던 삿가지를 싸에떠러드린다 그러나 모친보다 정남의얼굴은 별안간에 흙빛이되며

『안이오나는 안이삿셔요』

『안이삿셔 안이삿스면 도치만은 너는 부모를속이려고 그리하느니나 정말을하야야지 사람이거짓말을 하셔는못쓰는법이야 너는이전유명한 영웅에 화성돈(華盛頓)의스적을 너게드릿지 화성돈의 아버지가 극히의중하느니 잉도나무(櫻木)가잇는디 하로는 화성돈이가 어린아희작란으로 그나무를 베엿더니 그부친이 더단이노히느디 그당장에 화성돈이가 죽시 잘못하얏노라고 죄를 즈복하사라으로 그부친은 도로혀 깃거하고 하느말이 잉도나무는 멧쥬를베

히 더러도 앓갑지안이하다 진짚네 정즉한 마음이 제일보리라 하고 하였단 말을 너도 아주 잊지안이 하였겠치 여기 있는 네아비도 그와 마찬가지로 사과 따 먹은것은 조금쳐도 앓갑지 안이하다 만은 너는 잘못한죄를 숨기려하니 사과는 멧천기 멧만기를 일어바린것보다 네 거짓말하는 소위가 더욱맵고 분한다 잘못한일을 숨기려하는것갓치 언짢은것은 업느니라 잘못한일이잇스면 곳 그 잘된일을 누우쳐서 스죄하는 그런정직할마음과 용명이잇스면 나는 너잘 못한것을 결코나 무라지 안이 할터이다 죄를 짓고 숨기는것은 지은죄보다 더 중한죄를 가하는심이니 이후에는 잘못한일이잇드리도 숨길생각을 하지 말고 곳부모다려 잘못하였노라 하면 흘슈업시 용서도하려니와 너의 부모의 마음 이 오작도겠느냐 그러나 사과는 정말안이 씻느냐

하며 노기가 등々하니 정남이보다 경조의 가슴이 그 남편의 말에 결니고 찌르듯 하여 감히 얼굴도 쳐다보지 못하고 고기를 속이고 무릅만 바라보고 있다 정남은 그 부친의 무서운 얼굴과 엄한 언스에 점々괴운이 출하여 모친의 무릅에 뛰어 달니여 얼굴을 감초려하며 떠는목소리로

『아이고 어머니 나는 사과를 따지안이 하였소』

그러나 정남의 저고리 압박이 등々하여 무릎을 감초아 너흔것갓흔것을 정협관이 보았는지라 곳달녀드러 저고리를 헛치고 스실하려흔즉 정남은 저고리섭

을 두손으로 가리우려할새에 한기 사과가 그속으로 좃추 구을너려려진다 그 사과를 집어들고잇는 정옥조의 얼굴은 정남의 얼굴보다 더욱푸르렀다 경조는 좀다 못하여 얼굴을 가리우고 체읍하며 정남은 겁이나서 전신을 벌々 떨고 잇다

데삼십이회

정옥조는 더욱분함을 의의지 못하여 한손에 사과를 든채로 또 한손을 너여 밀어 정남의 목뒤 옷고디를 훌켜잡으려한다 이 아히는 놀니고 겁하여 얼굴에 혈색이 것치고 전신을 떨며

『아이고 어머니』

소리를 질으며 모친의 무릅우에 안기는지라 경조는 치마차락으로 가리워주며 『여보시오 령감 그 만용서히 주시요 너 모놀니셔 몸이 스시나 무 션니 듯합니다 그러 그리다가 병이나면 잊지 할닛가 나중에 내가 잘타서 일을 터이니 그만 정지하시요 무슨 못된마음으로 그것을 싹슬리야 잇겟습닛가 어린아히들의 작란이지오』

정옥조는 그 말을 듯더니 더욱괴석이 엄하여지며 경조를 더욱히 치어다보더니 『글세부인 사저 그것게 말을 할단 말이오 못된마음으로 싹것이 안이라 하니 부인이 지금 너가 할 말을 알아드렸소 너가지금 할 말을 자서이 생각을 하여보오

너가 평일에도 정남이다려 일상일은 말을 부종치안이하고 아버의명을 거스르스니 그것잘못한 죄여니와 더구나 거짓말을 하지안앗소 정직함마음으로 즈복하면 니가 용서하여 주겟다하고 저서히알아듯도록 세우쳐주엇것만은 그리도 중시듯지안이하고 아비를 속이려고만하네티 부인은 이놈이 못된마음이업다하니 정녕 잘못된죄가 업겟소 나와부인은 아놈을감독하는 권을가진사름이라 어디서지든지 육형을써서라도 가르쳐야할겟소』

하며 무릅우에업다려 썩러지자안이하랴하는 어린아히를 억지로써아서 업호로써여안고 안히의얼골을 바라보네티 그얼골에는 찬서리듯흔 괴운이보인다 경주는 정신업시 몸을벌々떨떨이라 경주는 저괴의지은죄가 저괴몸에 낫하나 지안이하고 도로혀 다른곳으로 낫하낫도다 나의가장사랑하는 아달이발서 임의거짓말하는 물건이되엿더라

그러나 경주는 오히려 이즈하는정리에 다시 남편에게이결한다

『경감말씀을 그르다하는것이 안이을시다말은 정남이가 넘어뜨릿가 병날가 무셔우니 이번만 용서하야주소요 나중에내가 단々히일너주겟습니다 이번에는 나를 죄를주소드리도 그이는 용서하야주소요』

『부인의지금말은 내가 명령을잡을수가 업구려 저식의잘못한죄를 너게써여 달나하니 그말은 엇더케하는말인지 모로거니와 니가저식을가지고 잘못한

일이업네티 그렇게 절제를하는것갓흐면 나를보아셔라도 용서하라하는말도 고이치안이하겟지만은 이번일은 전혀이놈을 가지고 썩지질일이오 이어린 것을 너인들 이르게하고 심어셔하는것안이라 모두가 너던지부인이던지또는 이어린놈이던지 그세사름을 다위하노라닛가 저연그러한것이오그러그런디 부인말슴과갓치 만일이놈을이러한일에 증거를하지안이하고 너버려두면 우리정가의집 루디봉스할 한낫저식이 인하여 거짓말장으로 장성할터이니 그안이 싹호오 지금너속은 앓호고쓰리고 무엇이러 형언하기 어려운디 엇지하여셔 우리부々두사름스이에서 저와갓흔 두가지죄를 범하는저식이 싱겟는지 도모지그사름을 알슈업소』

하고 다시정남이를 내려다보며

『정남아 내가지금 너를 증거코즈하는것은 내가골이나셔 그리하는것도안이 오네가미워셔 그리하는것도안이오 네가나다려 거짓말을헛는고로 지금네 아비나는 락담이되어셔 가슴이무어지는것갓다 네가만일 이후에아조 거짓말장이가 되고보면 그씩는다시회복될슈가 업스닛가 그리셔 지금너를 증거코즈하는것이다』

그러나 임의부친의엄한 모양에 놀니엿는고로 정남의귀에는 그말이저서히드러가지못한다 정옥조는 다시슬픈괴식을써우고 경주를향하야

『내가 거짓말과 부정(不正)한 일을 실어하기를 구슈갓치 하는 것은 부인도 저 세히 아는 바가 안이오 그런티 아히니 용서하여 주라 하는 말은 엇지 혼의 스에 서 나는 말인지 모로 겿구려 어련 아히들이 냇가 후시 작란도 잇슬 것이오 못된 짓도 흘씩 가 잇슬 터이지 만은 엇지 하여 잘못 하던지 잘못 하였던 지 쥬시 회과 를 식여셔 다시는 안이 하도록 하는 정직한 마음을 길너 주는 것이 데일 필요하 지 만일 잘못한 일을 어디서 지던지 숨기려고 하는 성질을 비양하얏다가는 과 연 그 역시 아조바리는 지식은 만드려 노을 터이니 부인이 만일 나를 위하여 주고 또는 정가의 집을 위하려 하던 아히들로 하여곰 거짓말과 바르지 못한 일을 일절 엄금하시고 만일 그리도 잘못되는 썩 가 잇거던 곧 회과하도록 가라쳐 주 시오 부인은 특별이 그 림을 주의히 주어야 하겟소』

이와 갓쳐 서 류하는 정육조의 괴석이 경지가 전일에 일즉이 보지 못하든 엄속한 일골이라 늦기여가 머우는 정남의 손을 잇글고 외당으로 나아가니라

데삼십삼회

정남이가 그 부친에게 형벌을 당하려 외당으로 쏘녀나 잔 후 녀지의 연약한 마음 에 잔인함을 의의지 못하여 울음이 스스름 목이 메어나오는 것을 강인히 억제하 고 황연이 안져잇스니 다만 가슴만 일천가지로 산란하여

아니 죄가 오날와서 조식에게 이를 줄을 엇지 뜻이나 하얏스리오 저의 죄는 제

가 홀로 그 결과를 받으리라 하얏더니 철모로는 저어린 아히의 마음에 서지 썩지 못할 흠점이 생기엿스니 이 일을 장차 엇지 하면 묘호리오 나의 거짓말만은 마음 을 정남이가 달맞는가 남편은 나를 김히 신용하는 고로 나와 부인 스이에서 나 온 조식이 엇지 하여 거짓말을 하는뇨 히척하기 어려운 일이라 하시나 나는 그 사 뵈이 환연히 보이는 것갓도다 그러나 정남이가 지금 새철세에 비록 어련 아히일 지라도 별로 허 못된 작란도 하지 안이 하고 거짓말한 일도 그다지 업거늘 하필 오 날날 일으러 그런 짓을 하엿는고 지금 오죽이나 미를 맛고 잇슬 나고 아아 우는 소리가 들니 네 아이고 불상하야라 조식 되신 니가 가서 형벌을 당하는 것이 나으 리로다 진정으로 정남이는 잘못한 것이 업고 모다 이 어미가 죄가 만은 사뵈이니 이 몸은 진실로 죄를 당하여도 당연하겟거늘 이 몸은 도로혀 아모일도 업고 무죄 한 어린 아히가 어미의 형벌을 뒤신하여 입으니 그것을 보면서 아모소리 업시 모로 체하고 잇스니 엇지 인정이 라고 할 슈... 아아 이케 하는 님의 벌인가 오쟝 이모다 녹는 것갓치 정남이가 불상하도다 지금이라도 니가 좃츠나아가서 정남 이를 품에 안고 그 형벌을 너 몸에 밧앗스면 이마음이 시원할 듯하나 놀녀져 정선 업는 어련 아히를 쳐다지 하시니 비록 타일으신다 하기로 무슴정신에 그 말슴이 귀에 드러갈 리가 잇스며 넉적 영웅의 스적을 말슴하시드리도 어련 아히의 놀녀인 가슴 조곰 진정되거던 말슴하시면 잘아라듯고 잘못하얏다고 조복하련 만은 안

루 옥 쌍

이이말도 뇌좁은소견의 생각이다 나를달마 나온것식이면 거짓말이야조런성  
 이되었을지도 모로지...또이몸은 가슴속에 비밀은스정을 감추어두고잇스  
 면서 조식하려는 거짓말하지말야 무슨입으로 그말이나오며 제몸은지금것조  
 복을하지못하면서 조식하려는 잘못하는일이잇거던 곧조복하라고 엇지말하리  
 오 제몸은비록 그러하드리도 아히는 그러치안도록 가라치려하나 그일은제  
 일량심에붓그러워 못하겠스니 과연이몸은 조식도능히 교육할조격이업슴이라  
 처음으로 니가집에 드러올썩에 마음은비록 니가한번 더럽혔든몸이라도지  
 금은 다시결박몸과 갖치되었스니 이후에는 낫는조식이니 너々히 교육을식  
 이어 전일나의죄를 조곰이라도 써서바리々라하엿더니 그도다쓸티업는생각이  
 오 부々스이로 말하여도남편은 언제던지 이몸을스랑하여죽건만은 이마음에  
 는 물우에기름 섞긴것갓흔생각이 전혀업다할슈업스니 이것은모다 니마음으  
 로 조격하는일이라...아! 엇지하면 조흔가 지금와서 별안간에 전죄를조  
 복할슈도업고 조복할마음은 간절하지만은 남편의성절로 피를논은 조식도거  
 짓말은 조곰도용서하지 안이하는디 하물며 니가조복한다고 용서할실리도  
 만무하거니와 이일이 어느때던지 어니곳에서 탄로하는썩는 무슨슬픈지경을  
 당할는지 모르리니 아! 장초엇지하면 조호리오 언제나 이근심을바리고하  
 로나스라볼는지 여러히를 지니면 이런근심도 이즐날이잇슬가 하얏더니 지금

일으려서는 어린아희신상에 어미의죄가 낫나서 잇고조바라던금심이 더욱  
 세로와지니 이몸은 디하에도라갈썩썩지 이근심은 붓초초단이려는가 아!이  
 팔조야

하며 두손으로 얼골을가리우고 락업시벽에몸을실니여 안젧더라  
 데삼십스회

루 옥 쌍

이일을 당한후로부터는 경조의근심이 더욱세로와지고 조곰이라도 질거운마  
 음으로 날을보닌일이 적더니 이히가을에 일으려서는 드티여 신경쇠약(神經  
 衰弱)이라하는병이 일어났더라 정육조는 안희의신양을 깎히근심하며 의원은  
 경조를 권하여 온천(溫泉)을하는것이 대단효험이 잇겟다하나 경조는만스에  
 락이업는사람이라 의사의말을 좇지안이하얏더니 그후정남이는 홍역(紅瘧)을  
 지니고인하여 스소흔병이 몸에떠날스이가 업스며 겸하여 그부친정육조도한  
 양하고조하여 정육조의부々는 그아달정남을 다리고 세상티살을 피하여기성  
 군으로 내려가기를 결단하얏더라

경조는 떠나려할썩을당하여 그부친에게 괴별코조하여 지필을드러 편지를쓰  
 려할조음에

『어머니』

불으며 달음질하여드러오니 이는곳 정남이라 경조는 정남을 눈흘겨보며



『골세웨이리 요란이구나 찬찬이 단가지 슈션스럽게 그게 무슨 거름이야 형  
실도 고약도 하지』

정남은 썩젓는 소리에 잠시 무료히 섰다가

『그런데 어머니 저어 식골의 할아버지가 오셨셔요』

경주는 반가히 놀리며

『응 할아버지가 오셨셔 아이그림 잘 되였다 어서 피사고 드러오나라』

『조곰있더니 리괴장은 정남의게 슬니여 히히우스며 드러오는데 나흔 룽십오륙

세나 되엿스나 별로히 큰 병은 업섯더라 그러나 오륙년 동안에 반박이 되엿던 터

럭이 전혀 박설갓치 되엿스며 허리는 활동갓치 굽엇더라

리괴장은 저리에 안진후 정남의머리를 어루만지며

『인제는 아쵸 쾌히나 앓느냐 응나도 인제는 녀려를 늦겟다 식골멀니안져셔는

마음이 안노이드니 그러나 몇달만에 보닛가 그동안 크기도 더하고 얼골도나

아졌다 암만하여도 씨가 짜로 있는 것이야 우리게잇는 너종손 덕동(德童)이

란놈은 이의게다 엿지티기나 흘슈잇나 숯하고 눈하고 비교하는 심이지

경주는 부친의 암호로 갓가히안지며

『그리도 덕동이는 몸이튼튼은하 지오』

『그렇치 식골놈이 되여셔 실하기는하 지 그러나 너는 엿지히셔 이 늙나은후

는 다시 소식이 업느냐 말서철 팔년 동안이 되니 그게 엿전일이냐』

정남은 엽해안져 잇다가 리괴장의 무릎을 흔들며

『할아버지 々々々 그런데 왜 덕동이는 다리고 오지안이 하섯쇼』

『응々 그놈은 너 무작란만하닛가 안다리고 왔다 그러나 그덕신에 너가 갈데는

너를 식골로 다리고 가갓다 뒤스동산에는 너 조와하는 감이 쥬렁々々 미달녜스

니 내 먹고 십흔티로 응』

정남이는 그말에 마음이 움작이여

『그러면 나도 할아버지하고 공쥬갈테야』

경주는 정남의 손을 잇스글며

『공연이 지각업는 소리하 지말아 너일이면 다른 식골을 갈터인티 공쥬는 엿지

잔다고 그리니』

『올치 참나는 이저바렸지 그만 할아버지 나는 저어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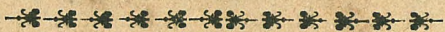
먼 식골로 가요』

리괴장은 삼씩놀리며

『무엇이 식골을 가다니 안이 정말이나 응경조야』

경주는 아직 대답하기전에 정남이가 리괴장을 치어다보며

『정말이야요 너일가요 그러닛가 어디 할아버지하고 갈슈가잇나 그런데 할



는 다시 소식이 업느냐 말서철 팔년 동안이 되니 그게 엿전일이냐』

정남은 엽해안져 잇다가 리괴장의 무릎을 흔들며

『할아버지 々々々 그런데 왜 덕동이는 다리고 오지안이 하섯쇼』

『응々 그놈은 너 무작란만하닛가 안다리고 왔다 그러나 그덕신에 너가 갈데는

너를 식골로 다리고 가갓다 뒤스동산에는 너 조와하는 감이 쥬렁々々 미달녜스

니 내 먹고 십흔티로 응』

정남이는 그말에 마음이 움작이여

『그러면 나도 할아버지하고 공쥬갈테야』

경주는 정남의 손을 잇스글며

『공연이 지각업는 소리하 지말아 너일이면 다른 식골을 갈터인티 공쥬는 엿지

잔다고 그리니』

『올치 참나는 이저바렸지 그만 할아버지 나는 저어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먼 식골로 가요』

리괴장은 삼씩놀리며

『무엇이 식골을 가다니 안이 정말이나 응경조야』

경주는 아직 대답하기전에 정남이가 리괴장을 치어다보며

『정말이야요 너일가요 그러닛가 어디 할아버지하고 갈슈가잇나 그런데 할

아버지는 감이나 좀 싸가지고 오시지안코  
경조는 나무라는말로

『너는 실과라면 야단이 드라 그만져리가 거라』

『오! 참 니가 이겼구나 감을 가지고 왔는데 저마로에 가보아라 상조속에 감

이 드렸스니 쓰집어니여 먹어라』

『할아버지 정말이오』

『하며 정남은 마로를 향하여 뛰어나간다 리괴장은 다시 경조를 향하여』

『지금드르니 식골을 잔다하니 정말이냐』

『네 정말 숨이야요 그리서 지금 아버지씨 상셔나 할양으로 편지를 막 쓰려고』

『하든중이야요』

『아! 그리』

『하며 리괴장은 고기를 기우리고 무슨 생각인지 한참동안 말이 없다 경조는 그』

부친의 모양을 이상히 여겨』

『아버지 왜그리하세요 무슨일이 잇습닛가』

『안이 다 무슨별일이야 잇겟디만은 실상인즉 이런일이 혹시잇슬가하여 녀려』

가되여서 니가일부러 올나온길이다』

경조는 더욱의심되여』

『무슨일이잇서々 그것케 녀려를하세요』

데삼십오회

리괴장은 다시한숨지으며』

『엇지히서 녀려가되느냐 하면 니가일전밤에 너하고정남이하고 아조멀고 먼  
곳으로 떠나가니 지금으로곳 서을을나가서 맞나지못하면 다시는 만나보지  
못하리라하고 싸마귀같은 서한마리가 나다려말하는 꿈을 꾸었는데 꿈을 써  
고나잇가 전신이 으스스하고 이상하기에 이불을 덮고 다시잠을일우려하나  
도모지 잠은안이오고 눈은점々 반々히서 인히잠은못조고 날을보겠는데 아  
참에 일어나서 생각을하닛가 암만히도 녀려가되드구나 나쌀이나 먹어노으  
면 즈연조고마흔일에도 걱정이되는데구나 생각다못히써 궁금흔마음에 집일을  
을절쳐노코 오날식벽에 떠나서 올나온길이다 그러나 올나와서 드르니 정  
말어디로 잔다하며 쓰네알골을보니 슈심이 가득흔모양이니 니가엇지 걱정  
이안이되겟디 응 경조야 니꿈이 맞치려나보다』

경조는우스며』

『꿈을가지고 무얼그리 녀려를하세요 꿈을모도 못기시작을하면 당초에한이  
업게요 혹시엇지하다가 우연이맞는일도 잇지오만은』

『안이 그것케만 말할슈도업지꿈도다꿈나름이니라 싸마귀라하는짐성은 서』

중에도 그리 좃치 못하리라 조흔 일에는 나오지 안는 식인디 그식 말이 어서가  
서 잠간 맛나 보고 오지 안이 하면 다시는 못맛나리라 하니 부모된 마음에 엇지  
넘려가 안되니」

『그런 일을 무얼 다 밋으셔요 당초에 다시 못맛나 뵈을 싸들이 잇셔야 지요』  
『글세 그런 일이 업스면 좃켓지만은…… 그런데 엇던 식고로가』

『저- 송도로 간디요 저 도몸이 일상 세 뜻지 못하교 의원의 말도 산슈조흔 곳으  
로 가서 슈도를 가라 마셔야 낫겟다 하요 그리고 사랑에서 도 뇌병(腦病)이 잇  
다고 세식구가 한가지로 가즈하닛가 저는 마음에 가나오나 네키는 마음 업셔  
도 하도 사랑에서 그리 하시닛가 할 슈업시 네킬셔는 기로 정히는 데요』

리괴장은 두 무릅우에 팔을 올녀 노은 처로 정신 업시 한참 잇더니  
『그러면 지금와서 안간다고 말 할 슈는 업게 되었구나』

『네- 엇딴케 안간다고 하요……』

리괴장은 더욱 넘려하느니 마음을 늦치 못하며

『그러나 이이경즈야 하고 만은 데에 하필 기성으로 간단 말이나』  
『글세 저도 기성으로는 가기 실은디 사랑에서 지금껏 기성구경을 즈셔히 못할  
뻘안이라 대흥산성이라 하느니 곳은 가을 경치가 즈고로 유명흔 곳이라고 이번  
에는 단정코 한번 간다 하시닛가 엇딴케 말날 슈가 잇셔야 지오』

『허々 그러면 엇지 할 슈업구나』  
『그러나 아버지 웨그다지 넘려를 하셔요 가서 오리 잇셔야 한 보름 밧게 안이 잇  
슬겜 아버지 췌셔도 잘 단여 오라고 도흔 낫을 보여 주셔야 저 저도 마음이 도치  
요 그러케 넘려만 하시닛가 제 마음도 엇지 셤 임흔지 모로 겜습니다』  
이 말을 들더니 리괴장은 다시 마음을 돌녀

『허々 내가 잘 못하엿다 그러면 잘 가서 무스히 단여 오너라 그러나 나는 암  
만히도……』

『무엇이야요』

하며 부친의 나종 뜻해 이상스려운 말에 문득 가슴이 울렁거린다 이씨에 정남이  
가 마로 좃 좃드러오더니 리괴장의 엽호로 가셔 안는다 리괴장은 손을 드러 정  
남을 엽호로 씨며

『이이정남아 너는 송도가 지 말고 할 아버지 하교 함께 가자 음』

『나는 어머니 도가야 갈 데야 그럼 어머니 할 아버지를 우리가 되시고 송도로  
갓가 음』

『어그놈 괴루하다 할 아버를 다리고 가겟다니 그러나 나는 가지 못하겟스니  
너 여괴셔 너을 나을 췌셔지 기디리고 잇슬 터이니 을 나을 제 할 아버지 먹게 먹을  
것이 나 만히 밧아가 지고 을 너오나라 음 정남아』

정남이는 진정으로 벗아오라는 줄 알고 크게 근심하는 모양으로  
 『그리게 할아버지도 함께 가자닛가 그리시네 나는 할아버지 못가게 할터이야』  
 하며 리과장의 소리를 잡는지라 리과장은 안아다가 무릅우에 올녀노으며  
 『허허 할아버지 썩나기 썩々하니 이이경조야 암만히도 나는 녀려가노이지  
 안이흔다』  
 『.....』

대삼십륙회

정옥조와 그부인리경조는 사랑하는 아달정남과 유모만복어미를 다리고 지성  
 군 대홍산성에 이르러 었더흔집 하나를 치우고 두류흔저가 밭서 십여일이 되얏  
 더라  
 대홍산성은 산중이라 더욱이 가을경치는 이로형언키어려우니 단풍의 붉은남  
 시는 골々이 물드러트며 산용슈티(山容水態)의 절묘흔경치는 진죽여름보다  
 절승한다 일카를 지라 정옥조와 부인리경조는 정남의 손을 잇글고 이스이로  
 쇼요(逍遙)하니 조연마음도 쾌락하며 텨디조연(天地自然)흔 승경(勝景)은 경  
 조의 몸으로 하야곰 괴허간 건강(健康)을 회복하얏는고로 하로라도 일죽이 이  
 곳을 떠나 경성으로 도라오라하더라

숨흐다 이곳은 전일경조가 서병삼(徐丙三)의 간계에 빠진비되야 결벽무구(潔

白無垢)흔 리경조의 몸을 더럽혀노은곳이라 벌서 십년전넷일이 어늘 오날날이  
 경치를 텨흔 경조의 마음은 었지그티의 생각이 나지 안이하리오 경조는 여지로  
 라도 그 일을 잇고조하니 조연이 이견싱각을 금하지 못하고 밤에 일으면 호을로  
 탄식하며 체을하는 일도 잇스며 또는 너러을씩에 부친의 말슴도 드렛는지라 그  
 련고로 하로라도 마음을 못치못하고 근심으로 지닌일이 만으니 경조는 하  
 로라도 일죽이 이곳을 떠나고조하니 정옥조는 이곳경치를 탐하여 용이히도  
 라갈싱각이 업는지라 일々은 괴회를 타서 남편에게 말흔다

『령감 서올은 언제가 실례야요』

하며 의향을 무르른주

『나는 잠시동안 이세상 풍진을 이저바리고 이런경치도 흔곳에서 한양(閑養)을  
 하여서 그러흔지는 모로지만은 신기가 요스이는 대단이 도와졌는티 언제던  
 지 올나가 라면 올나가 겿지만은 부인의 병은 아즉도 쾌히나지도 못흔티 그리  
 호오』

『안이오 나는 밭서 병이 다나앗스니 녀려하실것업셔오 령감이나 더계시고 십  
 으시면 나는 더잇스나 업스나 맛찬가지닛가 아모상관은 업지오만은 집안일  
 이 걱정이 되여서 그리요 그리고 몸도 인제는 다나앗스닛가 조연집싱각이  
 남니다그려』

『집안일이야 무슨별로 큰걱정할일은 없는데 왜 그리하시오 니가 벼슬이나 단  
이는것갓흐면 모로지만은 나는 스무한신이오 무슨그다지 급할일이잇쇼이  
런조흔곳에서 몸을더 조섭하는것이젓치 부인은아죽도 신앙이왜복지 못하  
것갓흔디 아마여기도 올이잇스닛가 벌써실증이 나는게구려』

정옥주는 허々우스며

『그러면 장인이별안간에 뵈옵고심은것이 지』

경주는 잔신히우스면서

『흐々 뵈옵고심다면 무슨변인가요 그러치만은 그리서 그리는것도안이고 집  
일이 궁금하여서 잠간이라도 단여왔스면 조켓셔요』

『정그러하면 서울로올나가도 조켓소만은 나는올나갈마음이 업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부인도와하는디로 다른데로 갑시다그려 이곳은 차々추어오면 지  
미가업슬러이니 겨울이되여도 그리촉지안이흔디로 가보려오』

『글세 그러케하시면 도켓셔요 여귀는그만큼 구경을하닛가 지미가업셔요』  
정옥주는 허々우스며

『그리케 니가발셔알았지 여귀정녕 실증이난게라닛가』

경주는 고기를숙이고 붓그러운우숨을 썬우며

『글세 이곳이염증이 낫는지도 모로켓셔요』  
『응 그러치니가바로알았소 그러나 한삼스일동안은 참아주어야 할겓소 니가  
여귀서 무슨일을알아 보고자하는 일이잇스닛가 그일을안후에는 곳서울로  
올나가던지 그러치안이흔면 다른디로던지 갑시다』  
『그러면 아모렛케나 할지요』

경주는 지기가 쓰리고념려되는 이곳떠나게됨을 심이깃거워하야 이삼일지니  
가기를 급히기다리나 경주의소원이 여의치못하야 정옥주의 일행으로하야곰  
이곳을속히 떠나지못하게하고 가장을꾼일이 서로이성기엇더라

데삼십칠회

일로부터 철팔일전일이니 일々は 정남의유모가 저의불일이잇다하야 기성읍  
니를갈딕에 정남도 유모를싸라 한가지로 가고저하는지라 경주는 정남이가  
올이동안을 적적한산중에서 동모가업시 지니엿는고로 적々한마음에 그리하  
는하야 유모와한가지로 보니엇더니 유모는 정남과 기성읍니에 일으러 머물  
스이에 정남은 그곳아히들과 석기여리웃집에가셔놀고 올이도라오지 안이하  
는고로 유모는 스방으로초져서 불일을 맞친후 대흥산성으로 도라왔더라 그  
딕에 기성읍니에는 맛찰장감이라하는 열병이성형하야 정남이가 그곳아히들  
과가셔놀던집에도 장감으로신고하는 사람이잇섯스나 그유모는 전연히 그런